

##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-

### < 1. 인사말씀 >

☐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.

### 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☐ 11월 6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지난,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\*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9건과 74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.

\* (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) 갈치 7건, 꽃게 5건, 병어 4건, 봉장어 3건, 청어 3건 등

☐ ‘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’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, 통영시 소재 냉동창고 1건, 전남 여수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64건을 선정하였고, 249건을 완료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\* 10월 4주차 신규 10건 추가 선정(넙치, 고등어, 멸치, 전어 등)

□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
- 11월 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
□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
- 지난 브리핑 이후, 미야기현 이시노마키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,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0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□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- 11월 6일 기준,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울포솔밭·신지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\* 11월 1~2주차(10.30~11.10)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2개소 분석 완료

□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-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1개 지점, 남서해역 5개 지점, 서남해역 4개 지점, 원근해 17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.

- 세슘 134는 리터당 0.049 벵크렐 미만에서 0.094 벵크렐 미만이고, 세슘 137은 리터당 0.056벵크렐 미만에서 0.091 벵크렐 미만이며, 삼중수소는 리터당 6.6 벵크렐 미만에서 7.2 벵크렐 미만이었습니다.

\* ( $^{134}\text{Cs}$ ) <0.049~<0.094Bq/L, ( $^{137}\text{Cs}$ ) <0.056~<0.091Bq/L, ( $^3\text{H}$ ) <6.6~<7.2Bq/L

-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,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‘안전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

##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

- 브리퍼 :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-

### < 1. 인사말씀 >

□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.

### < 2. 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사고 관련 >

□ 지난주 브리핑에서 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작업을 하던 작업자 5명에게 배관 세정수가 비산된 것과 관련하여 ALPS 성능과 무관하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.

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해당 사안은 ALPS 정화 이전 단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의 피폭사건으로

○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알려야 할 이상상황에 포함되는 사안은 아니지만, 협력 차원에서 통보해 온 내용으로,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(NRA)에 질의하고 있으며,

○ NRA도 작업자 안전관리, 피폭선량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으로 알고 있으며, 추가적인 상황이 확인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다음으로, 도쿄전력이 비산된 세정액이 당초 100㎖에서 수 리터로 정정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정부는 도쿄전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, 세정액이 비산될 당시 정확한 현장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건 발생후 바닥의 흔적을 보고 추정한 양이 100㎖이었으나,
- 입원해 있던 2명의 작업자의 추가 확인과 현장의 상황을 다시 확인한 결과, 당시 비산된 세정액이 수 리터 정도로 추정하게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.
- 정부는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IAEA, NRA 등을 통해 확인·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,
- 한-IAEA 정보메커니즘과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실시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.

< 3. 방류 데이터 설명 > ※ 구체적 설명은 8.28 브리핑 참고

- 지난주 금요일(11.3)부터 어제(11.5)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,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

-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1~190 베크렐(Bq)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,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,500Bq을 만족했습니다.
-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,
  - 해수 취수구에서 8.3~9.8cps, 상류수조에서 4.5~5.3cps, 이송펌프에서 4.9~6.0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,
  -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.08세제곱미터( $m^3$ ),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,777~15,227세제곱미터( $m^3$ )가 측정되어,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
  -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,586세제곱미터( $m^3$ )였고,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2,306억 베크렐(Bq)이었습니다.

#### < 4.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>

- 도쿄전력 측이 지난주 금요일(11.3)부터 어제(11.5)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

-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(ℓ)당 700벵크렐(Bq)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.

※ 11월 4일 발표 T-0-1A 지점 삼중수소 농도(Bq/L) : 7.1,  
그 외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(Bq/L) : <5.4 ~ <9.2(검출하한치 미만)

- 원전에서 3~10km 이내 해역에서는, 11월 1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가 3일에 공개되었습니다.

- 이 역시,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(ℓ)당 30벵크렐(Bq) 미만이었습니다.

※ 11월 3일 발표 T-D5 지점 삼중수소 농도(Bq/L) : <7.9(검출하한치 미만)